

건강칼럼

눈매 성형, 부작용 꼼꼼히 확인

미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만큼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생김새가 있다. 그 중에서도 눈은 모양과 크기에 따라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 부위 중 하나다.

하지만 개인마다 어울리는 눈의 생김새와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눈이 가장 아름다운 눈이라고 할 수 있다.

눈의 생김새로 인해 인상이 좋려 보이거나, 자칫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생겨 불편을 겪는 경우 화장법으로도 보완할 수 있다.

눈꼬리가 올라가 있을 때에는 아이리라인을 이용해 순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작고 쌍꺼풀이 없

는 경우에는 새도우와 마스크라로 깊고 넓어 보이는 눈을 연출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장의 한계가 있는 남성이나 화장법으로도 만족을 못 하는 경우에는 눈매 성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눈매 성형의 수술방법은 크게 매몰법과 절개법으로 나뉘며, 개인의 피부성향, 쌍꺼풀 라인의 높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지게 된다.



박원진

원진성형외과 대표원장

있다.

또한 눈꺼풀에 지방이 많거나, 피부가 처져있는 경우에는 피부를 잘게게 불필요한 지방과 근육을 적당량 제거하는 절개법을 시행해야 하며, 매몰법에 비해서는 붓기가 오래 갈 수 있지만 더 선명한 눈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수술은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눈꺼풀이 처지거나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많이 시행되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사람들에게 눈매 성형은 익숙한 성형수술이지만, 체질과 사후관리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자신에게 맞는 수술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고민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자제언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서로 즐겁고 행복하자고 시작한 연애가 자칫하면 일상의 행복마저 앗아 가고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나를 끌어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연인 사이의 폭력은 줄곧 있었지만 그동안은 폭력이라고 인지하기보다 연인 간의 흔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해 왔다.

이런 피해 사례가 '데이트 폭력'으로 명명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진 2000년대 후반부터 사건 보도가 많이 되기 시작했고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인지하며 신고를 해오는 경우가 늘었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이상 간의 사랑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추행, 음란 전화,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외에도 언어적·정서적·경제적 문제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폭행, 감금, 납치 등의 신체적 폭력도 포함된다.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은 사적 갈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성관계 사실이나 동거 사실을 가장 또는 회사에 알리거나 성관계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데이트 폭력은 결코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반드시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를 입었다면 상담소에 전화하거나, 주위에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시 반드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자신의 안전이므로 가해자가 찾아올 것 같거나 위협이 느껴진다면 미리 주변에 '몇 시까지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지인에게 말을 해두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 두는 것도 좋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해자가 가진 보편적인 특징이 없으므로 누군가의 연인이리던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아닐까. 상대방이 소유물이라는 구시대적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연보배 익신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다시 찾고 싶은 지역축제 만들자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순창읍 일원, 강천산군립공원 등에서 제 11회 순창장류축제가 열린다. 여느해와 달리 보름정도 앞당겨 행사를 치를 이번 행사에 순창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중에는 초가을단풍 행락철과 맞물려 강천산군립공원을 경유해 천년의 장맛을 보기 위해 1일 평균 5천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진입도로 및 주변 질서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 높은 질서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불법 주·점차 및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교통질서로 인해 한 것 부꾼 마음으로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인근 주차장에 주차는 물론 주차측이 마련한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교통질서 의식을 보여준다면 외국인들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순창, 한층 품격 높은 장류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경찰에서는 대대려 예방 및 주요 공연장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장류축제가 개최되는 동안 경찰은 관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교통통제로 소통위주의 교통관리와 사고예방활동을 펼쳐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순창군민 모두가 나부터 실천수행하는 마음가짐으로 교통질서를 지킨다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성공적인 명품 지역축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이정호 순창경찰서 경무계장경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삼락농정 실현시키려면 뛰어라

전북도에 삼락농정이 잘 돼가고 있는 물고 싶다. 농민들에게 삼락농정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전북도는 가장 중요한 분야에 몰인하겠다며 농업분야와 관련 공무원과 탄소분야 등 3대 핵심과제를 말한 적이 있다. 세 분야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그 누가 묻어 물어온다면 아무래도 농업 쪽이다. 왜냐하면 우리 전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인데다 지금도 많은 농가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제시했던 '삼락농정'이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추수철 가을 수확이 거의 다 이루어진 때라서 그게 더욱 그렇다. 전북도는 지난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농정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삼락농정이 바로 그것인데 삼락농정이란 전북도가 발표한 그대로이다. '보람 찾는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 그 목표이다. 전북도는 저번에 150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55개 신규 사업도 발굴해 모두 532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궁금하다.

본보는 전북도의 삼락농정 비전에 반색하면서도 우려했던 게 있다. 이번 추수철에도 벼논을 갈아엎는 농가들이 있었거니와 추곡 수매 문제 등 현실을 보면 삼락농정의 실현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농사에 보람을 찾으려는 이가 드물고, 농산물이 소비 시장에서 제 값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농촌을 찾는 귀농인이 드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삼락농정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전북도는 핵심품목이 돼서는 안 된다. 현장을 뛰어라 한다. 삼락농정의 목표를 실현시키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잘 알 것이다. 삼락농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수출 전략이 필요하고 농생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이 도정 최우선 과제라고 했으므로 농가에 실익되는 쪽으로 과감한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말 꺼냈으면 제도화 서둘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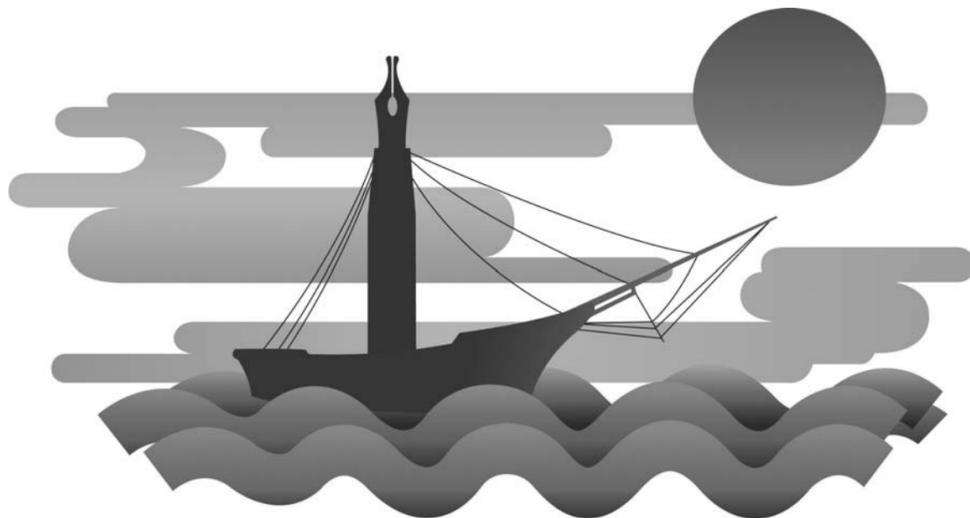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제도화가 절실한 때이다. 그런데 어찌 너무 조용하다. 그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해야겠다. 말을 꺼냈으면 뭔가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서 오래 전에 있었던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의의 정기총회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집주시장을 비롯해 여러 단체장들이 지역 인재 의무 채용에 관한 법제화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던 거 말이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말만 꺼내 놓고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공감은 하는 것 같은 데도 어찌 그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모든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 우선 채용에 대해서 진실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예전에 했던 말을 여쭙다 생각이 난듯 간헐적으로 되풀이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러면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희망사항에 그치고 만다.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먼저 다짐해야 할 것이 있다. 지방대학을 나온 지역인재

들을 위한 우선 채용에 대한 건의가 중요하기는 해도 그게 언론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수준이라면 곤란하다. 먼저 모범을 보여줬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공무원 사회의 현실을 보면 지자체들의 지역 인재 고용이 여전히 저조하기에 하다. 고용 현실이 예전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진정성 차원에서 많이 아쉬운 일이다. 전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도내 젊은이 태반이 비정규직이라는 데도 구태의연하면 말이 안 된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지자체들에게도 의무가 돼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마련과 관련하여 민심을 달래는 식의 발표는 합당치 않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인식하는 바가 정직해야 한다. 역 인재 우선 채용 법제화가 될 때까지 다들 서둘러야 한다는 당부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